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sup>4</sup>  
A63B 69/14

(45) 공고일자 1988년03월16일  
(11) 공고번호 실1988-0000880

(21) 출원번호	실1985-0010251	(65) 공개번호	실1987-0003574
(22) 출원일자	1985년08월09일	(43) 공개일자	1987년03월28일
(71) 출원인	김정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53		
(72) 고안자	김정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53		
(74) 대리인	박천배		

심사관 : 구대환 (책  
자공보 제917호)

(54) 수영기구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수영기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 수영기구의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 수영기구의 단면도.

제3도는 제2도의 A-A선 단면도.

제4도는 제2도의 B-B선 단면도.

제5도는 물갈퀴가 펼쳐진 상태의 측면도(수영기구를 뒤로 당길때의 상태임).

제6도는 물갈퀴가 접혀진 상태의 측면도(수영기구를 앞으로 밀때의 상태임).

제7도는 수영기구를 손으로 파지하고 전방으로 미는 상태를 표시한 평면도.

제8도는 수영기구를 손으로 파지하고 뒤로 당기는 상태를 표시한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          |           |
|----------|-----------|
| 2 : 격벽   | 3 : 공간부   |
| 4 : 전면판  | 5 : 물갈퀴   |
| 6 : 걸림편  | 7 : 간격유지편 |
| 8 : 손잡이  | 9 : 고무밴드  |
| 10 : 안전벽 |           |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도 손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수영기구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수영은 사람들이 각자 손과 발을 사용하여 물위에 떠있거나 떠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수영기구가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수영을 할 수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원형의 튜브나, 베드형 튜브등을

사용하여 물위에서 즐겼으므로 진정한 수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없었다.

또한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지면 체력이 약해져서 수영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남·녀, 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팔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본 고안은 내부가 다수개의 공간부로 구획된 몸체의 전방으로 전면판을 부착하고 전면판 하측방으로는 물갈퀴를 90. 각도로 회전자재하게 착설하여 사용자가 몸체를 잡고 몸체를 전방으로 밀면 직하방으로 펼쳐있던 물갈퀴가 물의 저항으로 인하여 절첩되어 저항이 없어지면서 전방으로 향하고 이 상태에서 몸체를 끌어당기면 물의 저항으로 물갈퀴가 펼쳐지면서 아주 큰 저항을 받게 되어 몸체를 당기는 사람의 몸이 전방으로 향하므로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손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하 첨부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의 수영기구(1)는 전면(가)이나 후면(나)이 유선형이고 원통형인 몸체(1)를 구성하여 내부에 다수개의 격벽(2)을 일체로 형성하여 다수개의 공간부(3)를 형성하였다. 몸체(1)의 전면부 하단에는 몸체를 당길때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아몬드형의 전면판(4)을 일체로 부착시켜 전면판(4)의 하방에는 일측에 걸림편(6)과 타측에는 간격유지편(7)이 돌출설치된 물갈퀴(5)를 회전자재하게 설치하고 이 물갈퀴는 전방으로는 90. 각도로 수직으로 펼쳐지고, 후방으로는 간격유지편(7)이 전면판(4)에 밀착될 정도까지 절첩되어 진다.

전면판(4)의 후방몸체(1)에는 양측으로 나란히 두개의 안전벽(10)을 입설시키고 두 개의 안전벽(10)사이에는 손잡이(8)를 끼워 설치하고 손잡이(8) 후방에는 고무밴드(9)를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사용시 사용자가 양팔에 각각 하나씩 끼우고 사용하거나 또는 한쪽 팔에만 끼우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고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팔을 고무밴드(9)에 끼우고서 안전벽(10)사이로 밀어 넣어 손잡이(8)를 잡는다. 이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면 몸체(1)의 부력으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 물에 뜨게 된다.

이 상태에서 손잡이(8)를 잡고 있는 팔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뺐으면 전면판(4)에 부착된 물갈퀴(5)는 물의 저항으로 몸체(1)의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절첩되어 지면서 몸체(1)는 전방으로 진행된다.

이때 물갈퀴의 끝단은 간격유지편(7)이 전면판(4)에 밀착되므로 일정간격 즉 간격유지편 끝단의 넓이(L)만큼은 밀착이 되지 않는다.

이 때의 상태가 제6도, 제7도의 상태이다.

수영을 하는 자가 팔을 완전히 뺐은 상태(제7도)에서 다시 몸체(1)를 뒤로 당기면 물갈퀴(5)는 전면판(4)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갈퀴(5)와 전면판(4) 사이의 일정간격(L')에 물의 저항을 받게 되어 물갈퀴(5)는 펼쳐지게 되며, 이때 걸림편(6)은 전면판(4)과 맞닿게 되어 90° 각도까지만 펼쳐진다.

이처럼 물갈퀴(5)가 완전히 펼쳐지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몸체(1)가 뒤로 진행하는 속도는 아주 약해지고, 반대로 몸체(1)를 당기는사람이 전방으로 이동한다.

이후 팔이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시 전술한 방법대로 팔을 뺐었다 당겼다를 반복하게 되면 사람의 몸은 자연히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어 수영을 할줄 몰라도 아주 쉽게 물에서 즐길수가 있다.

한편, 본 고안에서 전면판(4)은 물살을 갈라주는 역할과 몸체(1)를 물속에서 당길때 좌우로 요동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며, 안전벽(10)은 물 속에서 몸체(1)의 균형을 잡아주며, 또한 사용자(A)의 손(C)과 팔(B)을 보호하여 주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팔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수영을 할줄 몰라도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수영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도 본 고안의 수영기구를 사용하면 더욱 물속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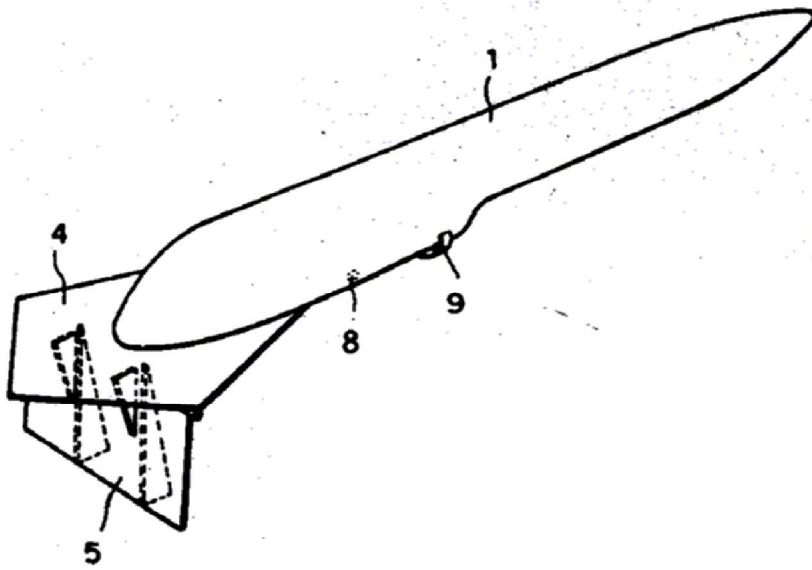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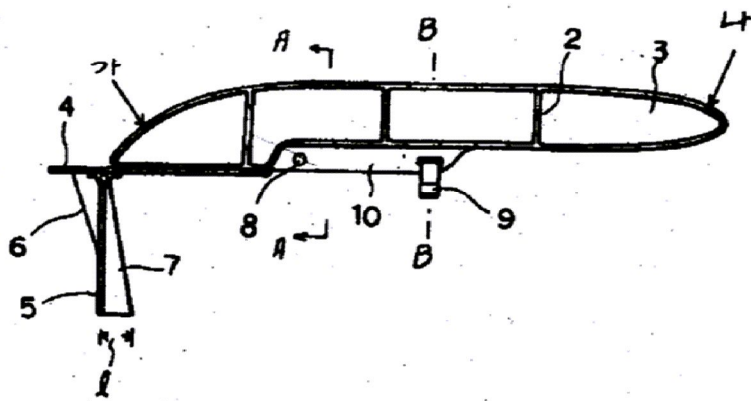
내부에 격벽(2)을 일체로 형성하여 다수개의 공간부(3)가 형성된 유선형의 원통형몸체(1)를 갖는 수영기구(1)에 있어서, 이 원통형몸체(1)의 전면하단부에 5각형의 전면판(4)을 일체로 부착시켜 여기에 걸림편(6)과 간격유지편(7)이 일체로 돌출형성된 물갈퀴(5)를 90° 각도로 회전자재하게 설치하고 전면판(4)의 뒷쪽으로 몸체(1) 하단부 양측면에는 두개의 안전벽(10)을 수직으로 형성시켜 이 안전벽과 안전벽 사이에 손잡이(8)와 고무밴드(9)를 부착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영기구.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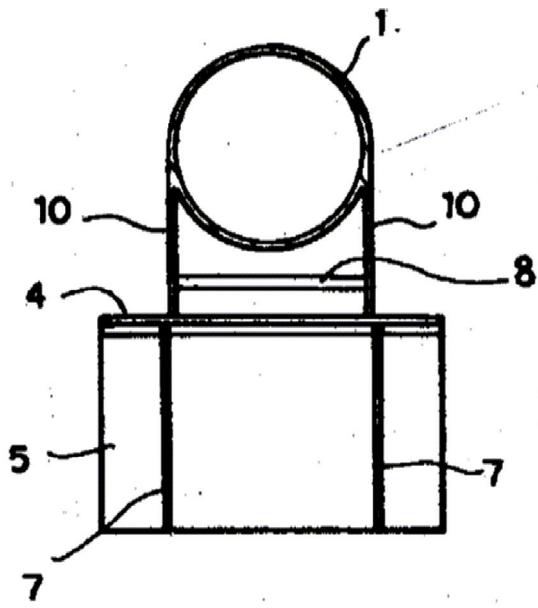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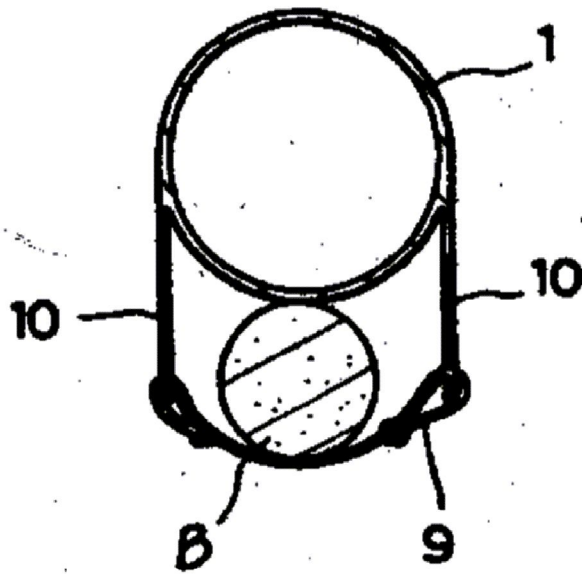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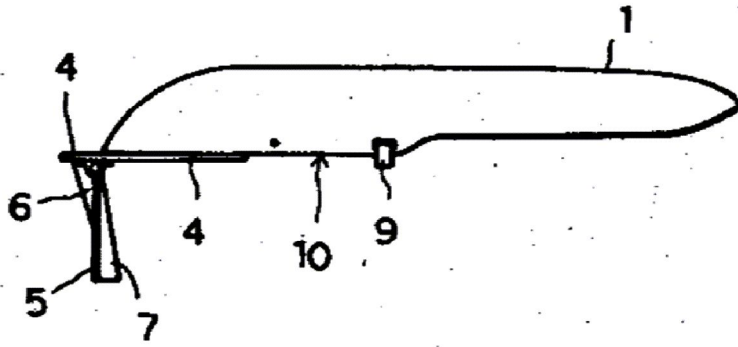
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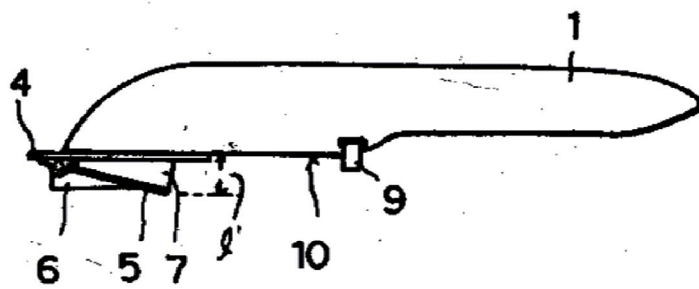
도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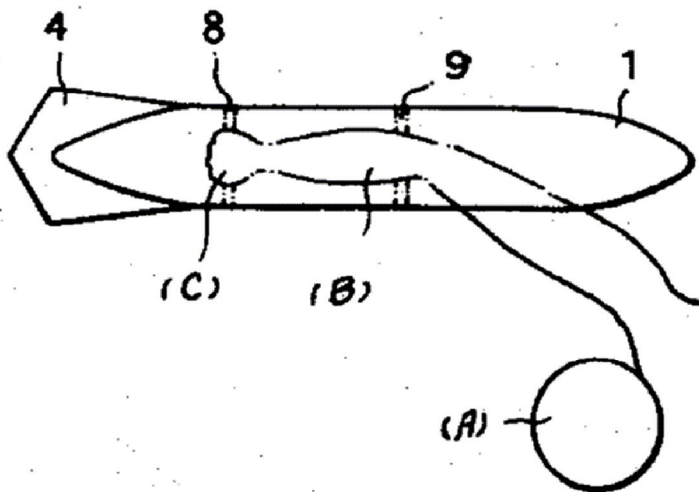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